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Op. 56a

- □□

정보

Variationen über ein Thema

von Joseph Haydn, Op. 56a

개요
곡명: Variationen über ein Thema von Joseph Haydn, Op. 56a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작곡가: Johannes Brahms (1833–1897)
작곡: 1873년 여름, Tutzing
초연: 1873년 11월 2일 빈에서 Brahms 지휘의 필하모닉 연주회
장르와 범위: 관현악 변주곡 Op. 56a 전곡. 주제, 여덟 변주, Finale의 열 구획으로 이루어진다 .
관련 판본: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Op. 56b

IMSLP: Op. 56 악보와 판본

Wikipedia: Variations on a Theme by Haydn 작품 문서

Johannes Brahms의 Variationen über ein Thema von Joseph Haydn Op. 56a는 관현악을 위한 주제와 변주곡이다 . 이 글은 두 대의 피아노판 Op. 56b가 아니라 관현악판 전곡을 다룬다. 관악기가 소개하는 Chorale St. Antoni 뒤에 여덟 변주가 이어지고, 마지막 Finale는 주제에서 얻은 짧은 저음 선율을 되풀이하며 작품을 끝맺는다.

‘Haydn의 주제 ’라는 역사적 제목
1870년 무렵 Brahms는 Haydn의 음악을 연구하던 Carl Ferdinand Pohl에게서 당시 Haydn 작품으로
여겨지던 관악 디베르티멘토의 필사 자료를 보았다. 그 가운데 Chorale St. Antoni라는 이름이 붙은 부분을 자신의 변주 주제로 택했다. 자필 총보와 초판에 남은 ‘Joseph Haydn의 주제 ’는 Brahms가 사용한 자료의
당시 귀속을 알려 주는 제목이다.

오늘날에는 원천 디베르티멘토 Hob. II:46을 Haydn의 작품으로 보지 않는다. Joseph Haydn-Institut도 이 곡을 잘못 귀속된 사례로 명시한다. 그러나 실제 작곡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선율을 Ignaz Pleyel 이나 부르겐란트의 옛 순례가와 연결하는 설명 역시 가능성에 머문다. 제목의 ‘Haydn’은 이 선율이 Brahms 에게 전해졌을 당시의 이름으로 남아 있다.

이 귀속 문제는 단순한 명칭상의 흠이 아니다. 원천은 오보에 두 대, 호른 두 대, 바순 세 대와 저음 악기 세르팡을 위한 음악이었다. Brahms는 주제를 처음 들려줄 때 관악기가 맡는 소리를 살리고 첼로와 더블베이스의 피치카토를 덧붙였다. 역사적으로 전해진 관악곡의 출발점이 이후의 넓은 관현악 편성과 대비되는 것이다.

Tutzing의 여름과 두 판본

Brahms는 1873년 여름 Tutzing에서 같은 변주 구상을 두 대의 피아노와 관현악으로 다루었다. Clara Schumann의 8월 20일 일기에는 두 사람이 새 피아노 변주곡을 함께 시연한 일이 기록되어 있다. 이는 피아노판이 일찍 연주 가능한 상태였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관현악 구상까지 그 뒤에야 시작되었다는 뜻은 아니다. Philadelphia Orchestra의 Christopher H. Gibbs는 피아노판의 선행 정황과 처음부터 관현악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한다.

관현악판은 1873년 11월 2일 빈 Gesellschaft der Musikfreunde의 첫 필하모닉 연주회에서 Brahms가 직접 지휘했다. Brahms-Institut의 목록은 날짜 뒤에 물음표를 붙이지만, 통상적인 초연 기록은 이날을 가리킨다. 두 대의 피아노판의 공개 초연은 1874년 2월 10일 Malwine von Benfeld와 Gabriele Brauner가 연주한 빈 음악회로 별도로 기록된다. 피아노판은 먼저 출판되었지만 공개 공연은 관현악판 뒤에 이루어졌다.

작품 구성: 같은 악구에서 달라지는 성격

*Chorale St. Antoni*의 첫머리는 네 마디씩 가지런히 짝을 이루는 관습에서 벗어나, 다섯 마디씩 이어지는 두 악구로 출발한다. 주제 전체가 그 열 마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복과 뒤따르는 악구까지 포함한 주제의 길이와 화성 진행이 변주들에 재료를 제공한다. Brahms는 모든 변주에서 선율을 똑같이 내보이기보다 빠르기, 박자, 선율을 맡는 악기, 반복 구절의 배치를 바꾼다.

관현악판의 공식 순서와 각 부분의 첫 빠르기 표시는 다음과 같다. 두 대의 피아노판은 같은 열 구획을 갖지만 몇몇 빠르기말이 다르다.

구획	표제 · 빠르기
주제	*Chorale St. Antoni: Andante*
변주 I	*Poco più animato*
변주 II	*Più vivace*
변주 III	*Con moto*
변주 IV	*Andante con moto*
변주 V	*Vivace*
변주 VI	*Vivace*
변주 VII	*Grazioso*
변주 VIII	*Presto non troppo*
피날레	*Finale: Andante*

주제와 변주 I–IV

처음의 코랄은 오보에와 바순이 중심이 되어 제시한다. 그 뒤 변주 I에서는 바이올린이 더 유동적인 음형을
엮으며 화음의 또렷한 박동 위를 움직인다. 변주 II는 점음형의 추진력을 높이고 클라리넷과 바순이 응답하면서 같은 악구를 한층 짧고 날렵하게 느끼게 한다. 앞의 두 변주가 빠르기와 리듬으로 출발점을 바꾼다면, 이어지는 두 변주는 선율을 누가 이어받는지에 더 귀를 기울이게 한다.

변주 III의 오보에와 바순은 원래 선율을 조금 꾸며 주고받는다 . Houston Symphony의 해설에 따르면 Brahms는 이 변주와 변주 IV에서 주제의 반복 부분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고 다시 써서, 같은 악구가 돌아올 때 관현악 배치를 바꾼다. 변주 IV에서는 단조로 색이 어두워지고 오보에와 호른, 비올라가 긴 선율을 나눈다. 같은 화성적 뼈대를 유지하면서도 반복되는 선율의 무게와 움직임이 달라지는 대목이다.

변주 V–VIII

변주 V는 빠른 6/8박자로 방향을 돌린다. 서로 짝을 이루는 목관과 예상 밖의 강세가 앞선 느린 변주의 긴 호흡을 깨뜨린다. 변주 VI 역시 Vivace이지만 음향은 다르다. 호른의 신호에서 출발한 행진풍 리듬이 관현악 전체로 확장되며 앞 변주의 가벼운 움직임에 힘을 더한다.

변주 VII의 Grazioso에서는 플루트와 비올라가 부드럽게 이어지며 시칠리아노풍의 박을 만든다. 마지막 변주 VIII는 Presto non troppo라는 빠르기말과 달리 무게를 앞세우지 않는다. 약음기를 낀 현악기 위로 피콜로, 클라리넷, 바순이 가볍게 나타난다. 이렇게 끝까지 음량을 확대하기보다 가벼운 소리를 마지막에 배치했기 때문에, 뒤따르는 피날레의 저음 시작이 더 뚜렷한 전환으로 들린다.

Finale: 주제의 일부로 만드는 또 하나의 변주
피날레는 앞선 여덟 변주의 소리를 한꺼번에 요약하는 짧은 결론이 아니다. Brahms는 코랄의 처음에서 얻은 다섯 마디짜리 진행을 반복 저음으로 놓고, 그 위의 선율과 악기 배치를 계속 바꾼다. 저음 선율을 바탕으로
여러 성부가 들어오는 이 과정은 파사칼리아 또는 샤콘느의 방식에 가깝다. 주제 전체를 반복하지 않기 때문에, 끝에서 관악기와 관현악이 원래 코랄을 다시 들려줄 때에는 처음의 선율을 새로운 밀도 속에서 만나게 된다.

반복 저음 위에 성부가 늘어나면서 관현악의 밀도가 높아진다. 피날레에서 트라이앵글이 더해지는 마지막
확대에는 쌓인 성부 위로 밝고 짧은 금속성 소리가 들린다. Brahms는 1880년대 제 4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에서도 반복 저음에 바탕을 둔 변주를 택했다. 두 곡은 같은 형식적 관심을 공유하지만 , Op. 56a는 주제와 여덟 변주를 피날레의 반복 저음에 연결하며 관현악 변주곡 자체로 완결된다.

출판 정보와 자료

두 대의 피아노판 Op. 56b는 Berlin의 N. Simrock에서 1873년 11–12월에 먼저 나왔다. 관현악 총보 Op. 56a는 같은 출판사에서 1874년 1월에 출판되었고 , 별도의 관현악 파트도 만들어졌다 . Brahms-Institut는 관현악 총보의 출판용 자필 원고를 빈 Österreichische Nationalbibliothek 소장 자료로 기록한다. 피아노판에도 별도의 자필 자료와 초판이 남아 있어 두 판본의 성립 과정을 각각 추적할 수 있다.

두 판본은 주요 구조를 공유하지만 빠르기 지시까지 완전히 같지는 않다. IMSLP의 두 판본 목록에서도
관현악판 변주 I의 Poco più animato가 피아노판에서는 Andante con moto로, 관현악판 변주 V의 Vivace가 피아노판에서는 Poco presto로 표시된다. 같은 변주라도 연주 매체에 따라 출판 악보의 빠르기말이 달랐던 것이다.

소요 시간

관현악판 전곡은 대체로 18–20분이다. Los Angeles Philharmonic은 약 18–19분, Philadelphia Orchestra 는 약 20분을 제시한다. 주제는 약 2분, 여러 변주는 각각 대략 1–3분, 피날레는 약 4분으로 볼 수 있다. 변주 사이의 빠르기와 음색 전환도 이 전곡 시간 안에서 이어진다.

편성

관현악판에는 피콜로, 플루트 2, 오보에 2, 클라리넷 2, 바순 2, 콘트라바순 , 호른 4, 트럼펫 2, 팀파니, 트라이앵글과 현악 5부가 쓰인다. 원천 관악 디베르티멘토에 있던 세르팡은 Brahms의 관현악판 편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주제의 관악기 소리를 출발점으로 삼되, 여덟 변주에서는 현악기가 선율과 세부 리듬을
폭넓게 맡고 피날레에서는 저음현, 관악, 타악의 역할이 차례로 넓어진다.

지휘자의 선택이 드러나는 곳

각 변주의 빠르기말을 따로 읽는 것과 열 구획을 한 번에 연주하는 일은 서로 다르다. Con moto인 변주 III와 Andante con moto인 변주 IV 사이에 어느 정도의 대비를 둘지, Grazioso인 변주 VII의 움직임을 어떻게
유지할지에 따라 전체의 호흡이 달라진다. Paul Steinson이 1947년 Bruno Walter와 Hollywood Bowl Orchestra의 현장 녹음을 논한 글은 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준다. 그는 도입 코랄의 짧은 목관 아티큘레이션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제 3·4변주는 움직임이 앞서 선율의 여유가 줄고 제 7변주는 경직되었다고 들었다. 이는
당시 녹음에 대한 한 비평가의 견해이며, 악보의 빠르기말 하나만으로 연주의 성패를 정할 수 없다는
사례이기도 하다.

오케스트라 안쪽 성부의 균형을 어떻게 만들지도 중요하다. Herbert Blomstedt가 Symphonieorchester des Bayerischen Rundfunks와 2014년에 준비한 공연은 리허설과 본공연이 함께 기록으로 남았다. NDR Kultur 의 Christoph Vratz는 리허설에서 Blomstedt가 개별 음과 악기군을 따로 짚은 다음 전체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을 들었다고 전한다. 제작사 BR-Klassik의 2026년 발매에는 2월 10일의 리허설과 13–14일의 Herkulessaal 공연이 함께 실렸다. 주제에서 목관이 이끄는 선율, 변주 사이에서 바뀌는 현악 ·관악의 비중을 실제로 조정해 가는 기록이라는 데 가치가 있다.

Iván Fischer와 Budapest Festival Orchestra의 Channel Classics 녹음에 대해서는 BBC Music Magazine 의 Erik Levi가 다른 음향을 지적했다. 그는 변주 V의 경쾌함과 VII의 우아함, 피날레의 선명한 트라이앵글을
꼽으면서도 내부 성부가 명료하게 들리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Walter의 빠른 변주 처리, Blomstedt의 리허설에서 이루어진 악기군 균형 조정과 함께, 이 녹음은 같은 악보가 빠르기와 내부 성부의 비중에 따라 달리 들리는 사례를 제공한다.

주요 자료

Brahms-Institut Lübeck, Op. 56a와 Op. 56b 작품 목록: 작곡, 자필 자료, 초연, 두 판본의 출판. Joseph Haydn-Institut, 전집 자료 안내: 원천 Hob. II:46의 Haydn 오귀속.
Christopher H. Gibbs, Philadelphia Orchestra 프로그램 해설: Pohl·Clara Schumann의 자료,
초연과 구조, 원천 편성.
Steve Lacoste, Los Angeles Philharmonic 작품 안내, Marianne Williams Tobias, Indianapolis Symphony 해설, Calvin Dotsey, Houston Symphony 해설: 주제의 구문, 변주별 악기 배치와 피날레.
BR-Klassik, Herbert Blomstedt 리허설 ·실황 발매 안내 와 Christoph Vratz, NDR Kultur 비평: 2014년 리허설과 연주에서 악기군 균형을 다루는 방식.
Paul Steinson, Bruno Walter 녹음 비평 과 Erik Levi, Iván Fischer 녹음 비평: 각 변주의 빠르기 · 아티큘레이션과 피날레 음색에 관한 서로 다른 청취 평가.